

## 도서관 조기완공 강력촉구

## 학교 기준입장 교수 총학 4일 총장면담 제의

지난11일 학교와 학생측과의 도서관 완공문제에 대한 1차논의 이후 학교학생간의 의견이 계속 대립을 보임에 따라 도서관 완공 문제가 장기화 될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6일 체육과학관 앞 혁명광장에서 약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조기완공을 위한 경희8천학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이성일(원자공·3)공과대학 학생회장 겸 도서관 조기완공 특별대책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학교당국은 지난 예결위 협상시 약속되었던 올해분 도서관 공사예산 20억여를 집행하지 않으려 하는 등 무성의한 행동을 보여왔다" 밝히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완공하고 자주학원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표(중문·4) 총학생회장은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해 "지난 18일 조영식 총장과의 면담이 학교측의 무성의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총장이 귀국한 후 10월4일 다시면담을 시도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수업거부, 시험거부 등 강경대응에 나설것"을 시사했다.

수원, 중간고사 다음주부터 실시  
서울은 일정대로 14일부터

양캠퍼스 교무부는 2학기 중간고사 일정을 서울 14일부터, 수원 7일부터로 발표했다.

서울캠퍼스는 원래 학사일정대로 진행되며 시험시간표는 다음주에 발표된다.

한편 수원캠퍼스의 경우 학사일정 보다 약 1주일 가량 앞당겨져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시간표는 단과대학별로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사범대학생회 설문조사

사범대 학생회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2학기 학생회 사업 전반에 대한 사범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원자주, 사범대학 발전문제, 학생회 강화 방

안등 5개의 질문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사범대학은 어디로 가는가'에선 교원인용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강경대응 방침으로 나오자 학교역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 CPA 14명 최종 합격

## 사범고시 5명도 2차시험 통과

지난 13, 14일 홍익대에서 치러진 '제26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본교사상 최고의 숫자인 14명의 학생이 최종 합격했다.

계무회계 등 총5과목에 걸쳐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 본교는 유기은(회계·4), 노동욱(회계·85), 김동연(회계·3), 배석규(회계·3), 최대규(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장은하(회계·3), 김용(경영·79), 이재우(경영·83), 심창호(경영·4), 김재동(경영·87), 송재현(경영·87), 이윤정(경영·3), 황보길(무역·84), 강영우(사회과학대 경영·84)로 14명

의 합격자를 냈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총 2백50명이 합격하였는데 본교는 전국 대학중 합격자수에서 6위를 차지했다.

특히 본교는 예년과 달리 제학생들이 많이 합격했으며 회계사 시험에 응시를 많이 하는 과인 경영·회계학과와 졸업생원이 타 대학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합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범고시 2차에 이성운(법학·81), 양사연(법학·81), 최철환(법학·81), 서종식(법학·79) 등 4명이 합격했다.

중양도서관 출입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5백62명중 3백77명의 학생들은 학적개정에 대해 학생회단위의 일원이라고 답했으며 만약 개정 시에는 학교측과 학생대표들이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6백25명중 5백4명인 80.6%의 학생들이 응답했다.

유옥렬군 세계체조선수권대회 금메달  
국내최초, 남자 개인 뽀틀 부문 수상

본교 체육대학 유옥렬(체육학·1)군이 지난 16일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개최된 '91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남자 개인뽀틀부문 금메달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5면>

유옥렬군은 수상후 소감을 통해 "저를 지도해주신 체육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옥렬군은 89년 국가대표로 발탁된후 각종 국내의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 '연출연' 동아리 인준 논란

지난 17일 열린 수원캠퍼스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신규동아리 등록이 거부된 '연출연연구회'가 이사장에 대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동원측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연출연연구회측은 "이날회의에서 비록 인준의 정족수인 참가자 44명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였으나 지난 1년동안 가동률 동아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임시 대표자 회의 소집을 위한 대표자 21인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자신들의 요구의 정당함을 밝혔다.

그러나 최만식(경영·4) 동아리 연합회장은 "이미 이의신청기한인 7일이 지났으며, 동아리 하나의 인준을 위해서 전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는 없다"고 밝힌 '연출연연구회'의 인준이 불가함을 주장했다.

한편 임시총회 개최는 동아리 대표 18인 이상이 발기를 하면 성사될 수 있으며, 지난17일 전체 대표자회의에서는 '연출연연구회'를 계속적으로 평택군에 남아 농촌활동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출연연구회'를 제외한 7개 동아리가 인준받아 있다.

## 총학, 학원자주 설문조사

## 학칙개정·기부금입학제에 부정적 견해 표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학원단합분회'와 학원자주권 쟁취를 위한 자주경회 대책반은 학칙개정, 복지회관 건립, 기부금입학제 등에 대해 지난 16일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양도서관 출입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5백62명중 3백77명의 학생들은 학적개정에 대해 학생회단위의 일원이라고 답했으며 만약 개정 시에는 학교측과 학생대표들이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6백25명중 5백4명인 80.6%의 학생들이 응답했다.

이러 복지회관 건립 문제를 살펴 보면 학내 주차문제 등을 포함한 복지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5백99명중 5백35명의 많은 학생들이 현재시설의 활용보다 복지회관의 건립을 통한 문제해결에 답했으며 규모는 학생측인 2천5백평~3천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선결조건으로 재단의 예산 지원과 학교측의 합의사항 이행이 거의 비슷한 응답율을 나타냈다.

또한 기부금입학제 도입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총6백13명의 응답자중 4백69명(76.5%)의 학생들이 반대여사를 표시했으며 사학제정 반론의 해결책으로 교육재정의 대폭적 확대가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 중간고사로 3주 휴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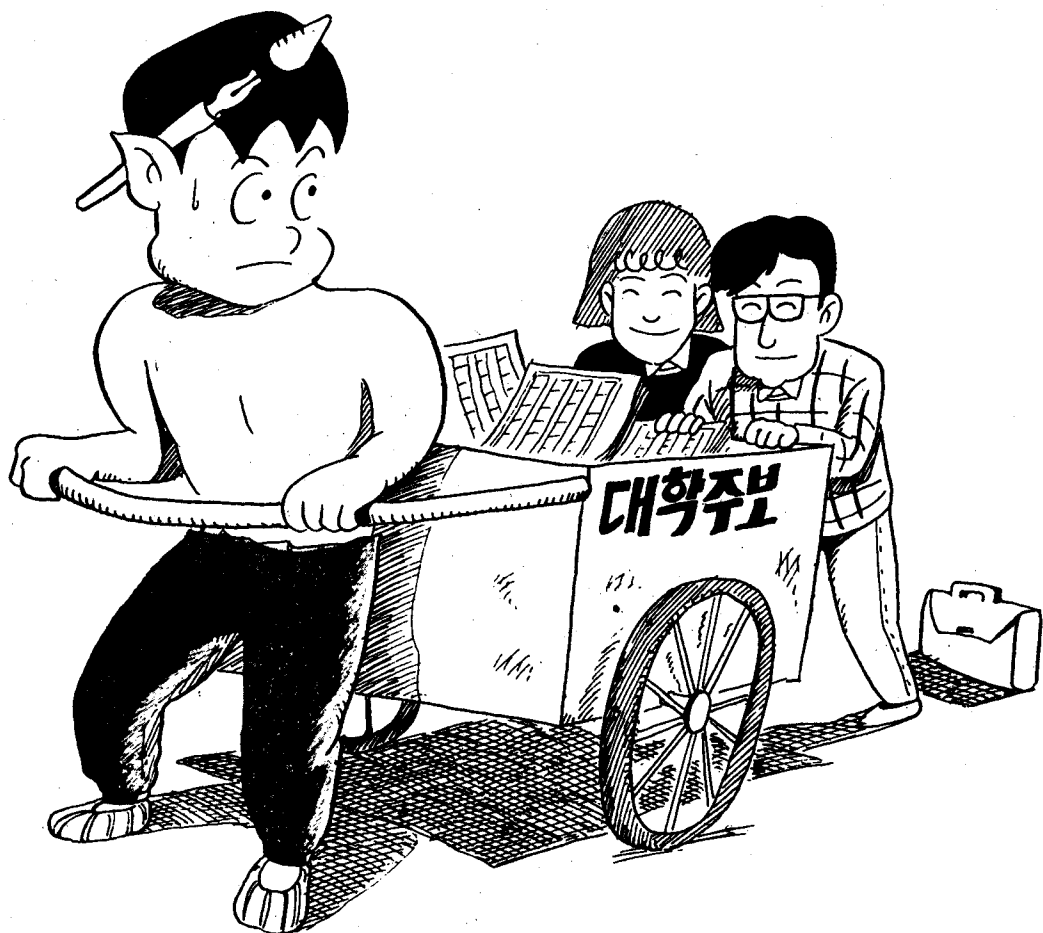


오랫동안 요구해온 체과대 복지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빚짓기에도 아랑곳 없이 두 학생이 침묵으로 항변하고 있다.

비닐로 덮은 소금그릇이 그들의 의지를 더욱 복돋는 듯 하다. <체과대 단식농성중인 체과대 학생들>

(이강숙記者)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주보는  
기자과 독자가 함께 만듭니다!



경희인의 理想과 思考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학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알려드립니다(200자 원고지 4-6매)  
'알려드립니다'는 교수·학생·직원등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의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 합니다.

□교수신문(200자 원고지 20-40매)  
전임이상 교원이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난입니다.

□독자신문(200자 원고지 20-40매)  
학생의 연구성과나 교수·직원·학생이 학내의 문제제에 대한 심층분석 혹은 시사적인 주의주장을 펴는 난 입니다.

□독자문예  
경희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난으로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시:(매주제한없음) ·수필:(200자 원고지 10-15매)  
·비평:(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소설:(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4-5회 연재분

□사건·사고 제보 및 정보 서비스  
학내외적으로 한 번쯤 대학주보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정보를 최대한 서비스해 드립니다.(자료의 성격상 반출이 금지되거나 열람만 가능한 것도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고는 본사편집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실 수 없을 경우 전화나 Fax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주·야간) 963-5849, 961-0093~5  
수원캠퍼스(주간) (02)745-5702 (교환:2055-6,2860)  
(0331)280-2055-6, 2860  
Fax 서울캠퍼스 963-5849 수원캠퍼스(0331)280-2238